

(주) 금성사

터미디어 PC 『스타미디어(STARMEDIA)』를 개발, 판매한다.

金星 STARMEDIA는 1991년 10월 멀티미디어 PC협의회인 MPMC (Multimedia PC Marketing Council)에서 제공한 규격에 맞춰 개발한 제품으로 인텔사의 1486DX2/66MHz의 고성능 CPU를 채용했으며, SOSTaip의 680MB의 대용량 CD-Rom 드라이버를 장착하였다. 또한 64MB까지 확장 가능한 4MB의 기본 메모리와 64MB의 CACHE 메모리 그리고 250MB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적용했으며 윈도우 엑셀레이터인 윈진(Wingine)과 로컬버스 설계로 윈도우 및 화상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STARMEDIA는 CD-Rom 타이틀, PC用 스피커, 사운드 블래스터의 프로 딜럭스 카드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사가 자체개발한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Video Overlay Board)인 『STARMEDIA』를 옵션으로 제공, TV와 CATV 등의 신호를 PC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VCR LDP, 캠코더 등의 각종 입력기기를 연결해서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화면의 캡처(Capture) 및 저장기능, 자막 삽입기능과 볼륨, 밝기, 색상 등의 조정상태를 윈도우 환경에서 보여주는 온 스크린(On Screen) 기능이 제공된다.

오디오 기능으로서는 표준 오디오를 지원하는 사운드카드를 내장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시키는 스테레오 DAC(Digital-Analog Convert)/ADC(Analog-Digital Convert) 기능 및 믹싱기능과 미디 인터페이스를 채용, 다양한 종류의 전자 음악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선호출 집중운용보전
시스템 공급
전국확대
금성정보통신 (주)**

금성정보통신이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무선호출(일명 삐삐) 터미널과 기지국 송신기들을 중앙에서 집중 운용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도권 공급계약에 이어 전국 4개지역에 공급키로 해, 전국적으로 원활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동사가 공급하게 되는 시스템은 각 지역으로 분산돼 있는 기지국 송신기를 중앙에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전북, 제주, 대구, 강원 등 4개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스템은 종래의 외국산 제품보다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개발하였으며, 각 기지국에 설치 돼 있는 무선호출 송신기의 동작상태를 자동 체크하는 것은 물론, 연결회선의 이상시 예비경로로의 절체 등 각종 감시, 제어기능들을 무인으로 수행한다.

이밖에 이 시스템은 각 기지국의 환경, 방법, 화재 등을 감시, 제어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스템 상황들을 중앙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터미널과 송신기 상태를 감시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

제어신호를 각 장치로 명령, 전달하는 중앙처리장치(CPE), 송신기의 각종 입·출력 상태 및 터미널과의 통신 상태를 측정, 기지국의 종합적 관리를 담당하는 기지국 제어장치(BPE), 각 회선상태 등을 제어하는 동기조정장치(SCE)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CPE와 SCE는 터미널과 함께, BPE는 기지국에 각각 설치된다.

사장전용팩스 운영
금성통신 (주)

金星通信(代表 白重英)은 특약점, 협력업체, 고객사의 의견, 욕구불만사항 등을 여과없이 수렴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최근 사장전용의 팩스를 설치하였다. 지난 4월 고객의 달 행사중 협력업체사장단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고 협력 및 고객사와 함께 발전하는 공동운명체로서의 연대의식을 제고하게 되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이 고객만족 경영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파 내부의 경영혁신을 기하게 된다.



금성통신의 사장전용팩스는 사용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클로버서비스로 제공된다. 수신된 팩스문서는 사장이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 후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감사문과 함께 직접 발송하고 일주일후에 조치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동사의 白重英 社長은 사장전용팩스 사용안내문을 일선 특약점, 공장의 협력업체, 고객사 등 700개 업체에 발송하고 이의 적극활용으로 회사의 경영혁신과 고객사 발전에 좋은 의견을 당부했다. 이로써 白重英 社長은 고객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시간관리, 고객만족 경영활동을 통한 조직 및 경영혁신 효과로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최장기의
20년사 발간
금성통신 (주)

金星通信(代表 白重英)은 60년대말 국내 통신산업이 일어날 무렵부터 91년도까지 국내 통신기산업을 선도해온 20여년간의 경험과 발자취를 담은 '金星通信20年史'를 최근 발간하여 관련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金星通信20年史'는 국내 최초의 종합통신기기 전문업체로서 국가의 기간통신망 건설과 확충으로 국가 경제 고도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또한 국내 통신산업 발달 및 관련업계의 기술력제고에 기여한 금성통신의 발자취를 총정리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산업의 발달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미래의 통신산업의 큰 즐거움을 전망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계 최장기의 사사를 발간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업·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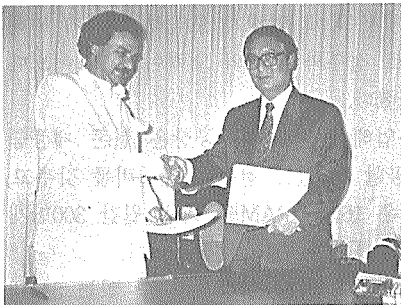
**파키스탄 칼라TV
공장 설립**
대우전자 (주)

해외 현지생산공장 및 판매법인 설립 등 세계 각지에 해외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대우전자(대표 裴荀勳)는 최근 파키스탄에 칼라TV 공장을 건설, 아시아지역 투자를 확대한다.

대우전자 鄭周浩 전무와 파키스탄 PEL社 회장 닛셈(Naseem Saigol)간에 22일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대우전자와 PEL社가 40 : 60 비율의 합작으로 총 5백만불을 투자, 대지 1만 평방미터, 건평 5천 평방미터, 연간 10만대 생산규모의 칼라TV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는 것이다.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장은 14인치, 16인치, 20인치, 21인치 등 4개 모델의 칼라TV를 생산, 파키스탄 내수시장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PEL社는 경영 및 운영자금 조달, 판매를 담당하고 대우전자는 생산기술을 비롯해 설비공급, 부품공급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합작 파트너인 PEL(Pak Electron Limited)社는 파키스탄내 9개 계열사를 거느린 사이골(Saigol) 그룹 소속의 전자제조업체로 에어컨 공장, 냉장고 공장, 변압기 공장, 컴프레서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어컨과 냉장고의 경우 각각 파키스탄 내수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냉기전문회사인데, 대우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 종합가전업체로 성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우전자는 현재 소형 직냉식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는 PEL社가 대형 간냉식 고급형 냉장고 생산을 원할 경우 관련기술을 이전해 줄 계획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품목 확대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업·계·소·식

**CATV 전송망
장비 출시**
대한전선 (주)

대한전선(대표 유채준)은 CATV 전송망 장비류 일체를 자체 개발해 국내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간선증폭기·간선분기 증폭기 등 증폭기류와 분기기·분배기 등 방향성결합기(TAP)류, 그리고 RF모뎀 등의 개발을 지난달말 끝냈으며 7~8월경에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8~9월말로 예정돼 있는 전송망 사업자의 CATV 장비류 납품 제안요청에 이번에 자체 개발한 전송망장비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전송망 사업자들의 장비류에 대한 시험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생산시점은 내년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소·식

**통합 TV 수신카드
시판**
두인전자 (주)

斗仁電子(주)(대표 金光洙)가 VGA 카드가 내장된 고성능 통합 TV 수신카드 「오스카(가칭)」를 개발, 시판에 나선다.

이 제품은 트라이던트社 8900CL 그래픽 프로세서를 장착해 1,024×

768 해상도 256컬러는 물론 640×480 표준 VGA 해상도 24비트 자연 색상으로 1,680만 컬러를 지원하는 VGA카드에 스테레오 음향을 지원하는 고성능 TV수신카드를 결합시킨 복합제품이다.

기존 TV 수신카드 기능을 대폭 향상, VGA 화면에 비디오 동화상을 중첩해 출력해주는 오버레이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을 처리해주는 투명색(Transparent Color) 기능 선택이 가능하다.

**16M DRAM반도체
량産 공장 준공**
삼성전자 (주)

三星電子(대표 金光浩)는 6월 3일 경기도 용인군에 위치한 기흥공장에서 金喆壽 상공자원부장관과 三星電子 姜晋求會長, 金光浩社長을 비롯 그룹 회장단 및 협력업체 대표 등 각계 인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16M DRAM 전용 공장(5라인)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서 三星電子 姜晋求 會長은 치사를 통해 “이번 三星電子의 8" 16M DRAM 量産 공장 준공은 지난해 국내 업체의 64M DRAM 개발에 이은 쾌거”라고 밝히고 “선진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내 업체가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사가 5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준공된 이 공장은 현존 제품중 최대인 8" 대구경 웨이퍼를 가공할 수 있는 첨단 量産설비를 갖추고, 메모리 시장 차세대 주력 제품은 16M DRAM을 최대 월간 300만개 까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공장이다.

특히 기존 6"에 비해 생산량을 2배 가량 향상시킬 수 있는 8" 대구경 웨이퍼 가공시설은 6"와는 달리 수율 및 품질의 균일성 유지 등 量産기술 확립에 장애가 많아 세계 선진 업체에서도 시작라인의 선점과 동시에 메모리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三星電子의 이번 量産 공장 준공은 4M에 16M DRAM에서도 세계 최대 공급업체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고수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었고, 세계 정상에 오른 메모리 분야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첨단 기술을 통한 국위 선양에도 기여하는 등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三星電子는 현재 기존 4M DRAM 생산라인(4라인)과 이번 공장의 본격 가동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16M DRAM 생산량을 100만개 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준공된 공장은 0.4 마이크론급의 초미세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16M DRAM에 이어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64M DRAM도 생산할 수 있어 향후 메모리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對 러시아 TDX

三星電子(사장 金光浩)는 모스크바 남쪽 600km에 위치한 사라토프 電子振興 '93. 7

輸出 본격화
삼성전자 (주)



(Salatovo) 州 발라코프(Balakovo)市에서 러시아 통신성 알레신(ale-shin) 수석 차관, 벨리흐(Velikh) 사라토프 주지사, 삼성전자 張周日 부사장 및 주요인사, 언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DX 개통식을 갖고 시험통화를 실시했다.

동사는 이번 TDX 개통식으로 러시아 통신시장의 주요 공급업체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TDX에 연결되는 전화기, 팩시밀리, 휴대폰, 사설교환기 등의 수요 창출 효과도 얻게 됨으로써 러시아 통신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91년 11월 러시아에서 외국 교환기로는 최초로 형식승인을 취득한 동사는 92년 3월 러시아의 통신구매업체인 캐미콤社와 TDX-1B 10,000회선을 일괄수주방식(Turn Key Base)을 계약 체결한 후 지난해 말 시스템을 선적하여 설치와 인수시험을 거쳐 이번에 개통식을 갖게 된 것이다.

CATV용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서강전자통신 (주)

西江電子通信은 종합유선방송용 정보통신시스템을 개발, 본격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동사가 개발한 종합유선방송용 정보통신시스템은 유선방송의 전송로를 이용해 화재발생 여부나 도둑의 침입 여부를 알아내 중앙의 통제소에 자동으로 통보해주며 각종 비디오텍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사는 앞으로 종합유선 방송국을 중심으로 이 제품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중에 있다.

프린터 신모델
4종 발표
(주) 신도리코

신도리코가 600DPI의 고해상도 레이저 프린터 2개 기종과 잉크젯 프린터 2개 기종 등 모두 4개 기종의 프린터를 내놓았다.

동사가 미국 텍스마크사로부터 도입해 판매에 나선 레이저 프린터(모델명 LP1220S, LPI 1230S)는 전자출판 및 그래픽 사용자를 위한 600 DPI의 고해상도 제품으로서 포스트 스크립트를 지원하며 출력능력은 LP1220S가 6PPM, LP 1230이 10PPM의 엔진을 채용, 속도가 빠르다.

이번에 발표한 잉크젯 프린터는 흑백(모델명 Execjet 프린터 4072)과 컬러(모델명 PS4079) 등 2종으로 흑백프린터는 360칼럼용으로서 360DPI의 고해상도와 한글을 220CPS의 고속으로 출력할 수 있다. 또 한글과 한자를 하드웨어에 내장, 각종 행망용 소프트웨어는 물론 윈도즈 드라이브를 제공, 윈도용 애플리케이션 SW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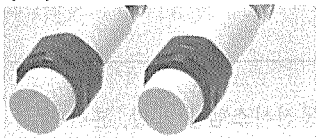
증폭스피커 생산확대
신우음향 (주)

新宇音響(대표 李鐘培)이 증폭스피커 생산을 강화한다.

동사는 최근 제천 제2공장을 4백여평 증축, 증폭스피커 생산라인을 확충했으며 다음달 초부터 이 라인을 통해 증폭스피커, 신모델과 슈퍼우퍼(저음보강스피커) 1종을 양산할 예정이다.

이번의 생산라인 증설로 신우음향의 증폭스피커 생산능력은 월 1만여대(쌍)에서 월 3만5천대(쌍)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이 양산할 신모델은 기존의 거래선인 日 쉐우드社에 전량 OEM(주문자 상표부착생산)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스위치 시판
(주) 오토닉스



(주) 오토닉스(대표 박환기)는 긴 수명과 고 신뢰성을 자랑하며 모든 유전체를 검출하며 또한 후면의 볼륨으로 검출거리의 조절이 가능한 근접 스위치를 시판한다. 동 제품은 레벨 및 위치 제어가 용이하며 방수기능 또한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접 스위치는 액면 레벨제어 및 기타 FA용에 적합하다.

중저가 Fax 2종 개발
(주) 일진

(주) 日進(대표 崔圭復)이 중저가 팩시밀리 2개 모델을 개발해 판매한다.

2년전부터 자체브랜드 저가보급형인 「JI-3000」 모델로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온 일진은 최근 「JI-3000」과 「JI-3500」 등 2개의 신 모델을 개발하고 내달부터 북미, 유럽, 동남아 등에 수출하는 동시에 국내 총판점 및 대리점을 통해 본격적인 내수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창고 자동화 시스템 개발
포스데이터 (주)

포스타데이터(대표 成耆重)가 최근 국내 처음으로 물류자동화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용 창고자동화 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용으로 개발돼 초기 투자비가 대폭 절감되므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창고자동화에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패키지화된 창고자동화시스템으로는 국내 첫상품으로서 크레인 운전자를 비롯한 창고관리 인력을 레이저 시스템으로 대체해 무인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제품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의 물류를 연속적으로 자동관리하는 작업 스케줄링 시스템과 제품 크레인 및 기타 운반기계의 현위치를 파악하는 레이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작업스케줄링 시스템은 컴퓨터를 통해 창고 내의 저장 현황

업·계·소·식

및 출고시점, 다른 제품의 입출고시점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출고 때 가장 알맞은 장소에 저장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재고관리패키지와 설비관리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고기능 Fax 개발

(주) 화승전자

(주)和承電子(대표 曹泰鉉)가 액정화면(LCD)을 채용한 고기능 팩시밀리(모델명 까팩스 HS-270S)를 개발했다.

가정용(개인용) 및 일반 사무실 수요를 겨냥, 60만원대로 소비자가격이 책정된 이 제품은 해외시장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송신원고 정면급지(페이스업)방식을 채용,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 하나의 전화회선으로 전화 및 팩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 내시스템과 전원사고 방지를 위한 프리볼트를 채용하는 등 가정용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세밀한 원고도 실물 그대로 재현해 주는 슈퍼라인 모드기능이 추가된 이 제품은 사용자로 하여금 오동작방지 및 팩스 작동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자가 누르는 버튼에 따라 수개의 안내 불빛이 점등하는 발광다이오드(LED)방식을 채용했다.

광전자사업 본격화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代表 鄭夢憲)가 최근 광전자산업 본격화에 나섰다.

'89년말 일본 광학기계 업체인 올림푸스社의 카메라 2개 모델을 도입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광학기계 사업을 시작한 동사는 현재 자체상표 8개모델과 연간 카메라 생산능력 60만대를 갖추고 정밀금형 및 제조기술 기반을 구축하여 광전자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2년내에 PHOTO CD, 광의료기기, 캠코더 등 광사업 다각화를 실현 종합 광전자 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동사는 최근 금성사로부터 카메라 3개 모델의 설계도면 및 금형을 인수하여 9월중 생산, 판매에 들어 갈 계획이다.

이번 설계도면 및 금형 인수는 금성사의 카메라 사업 정리방침에 따라 동사에서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현대전자는 금성의 기술력 및 설계도면 및 금형 인수로 생산력의 2배이상 신장 및 중급기종 이하의 전체적인 라인업을, 구비하게 되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줌(ZOOM) 분야 3개모델, 자동초점(AF) 방식 4개모델, 고정초점(FF)방식 1개모델 등 총 8개 모델을 양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자체개발 워크스테이션

미국정부에 1천2백만불 규모

현대전자(代表 鄭夢憲)는 최근 미국연방정부와 워크스테이션 생산 업체 단일제품 납품으로는 최대 규모인 2,000대(1,200만 달러) 규모의

**대량납품 계약체결 및
정부조달청(GSA) 품질등재
획득**
현대전자산업 (주)

자사 워크스테이션(모델명 : AXIL-210)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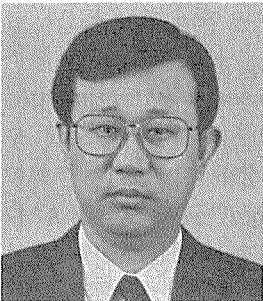
이번 미국정부의 공공용 프로젝트 납품계약으로 동사는 미국내 현지법인(HEA : Hyundai Electronis America, San Jose C. A. 소재)을 통해 AXIL-210 워크스테이션을 이번달 부터 납품에 들어가는데, 오는 9월까지의 월 50대 규모로, 9월이후부터는 물량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서 월 400대 까지 납품하며, 전체 12개월 또는 18개월에 걸쳐 총 2,000대, 1,200백만불 규모의 대규모 물량을 납품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제품 및 납품업체의 신뢰도와 품질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특히 이번 물량은 전세계적 통신용 프로젝트라는 특징 때문에 한층 강화된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대규모 물량을 수주했다는 사실은 현대전자의 워크스테이션의 신뢰도와 호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동사는 미국 정부조달청(GSA : Government Services Administration)으로 부터 스팍(SPARC) 호환계열의 워크스테이션 제조회사로 선 최초로 워크스테이션 관납에 필요한 품질등재를 획득했다.

GSA는 미국 연방정부의 납품업체 감독 및 관납품 품질 평가기관으로 92년 경우 16억불 규모의 정부기관 사용의 정보처리 사무기기 제품을 발주한 실적이 있다. 동사는 이번 GSA 품질등재로 자사 생산 워크스테이션의 품질을 미국정부로 부터 인정받는 한편, 향후 미국 연방정부의 관납용 정보기기 입찰에 유리한 여건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컴퓨터 (주)



현충훈 이사대우

한국컴퓨터(대표 한홍섭)는 최근 금융영업1부의 현충훈 부장을 이사대우로 승진발령했다. 현충훈 이사는 기존의 금융영업1부와 금융고객지원1부를 담당하게 된다.